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찬성 나온 과정 보니

‘반대’·‘유보’ 공론화 통해 ‘찬성’ 바뀌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반대했던 시민 중 35.6%, 유보 입장이었던 시민 중 73.6%는 공론화 과정에서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78.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론이 난 공론화를 통해 도시철도 2호선의 필요성을 느낀 시민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또,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20~30대와 여성들의 찬성 의견이 많았고, 노인층의 찬성 여론도 높았다.

이번 공론화에서 반대나 유보 입장이었던 시민이 결국엔 찬성 쪽에 손을 들어주면서 광주시의 도시철도 건설 작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243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실시한 최종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이에 앞서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해 진행한

2030·여성·노인 찬성률 높아…남구·광산구 80%대

1차 설문조사의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시민참여단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건설 찬성 191명(78.6%), 반대 52명(21.4%)으로 찬성 의견이 다수였다. 연령별로는 20~30대 젊은 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 20대와 30대 찬성률은 각각 82.2%, 81.4%였다. 이어 40대 76.0%, 50대 75.0%, 60대 이상 78.9%였다. 지역별로는 남구가 86.7%로 가장 높았고 광산구가 85.4%로 뒤를 이었다. 북구 78.3%, 서구 73.8%, 동구 60.0% 순이었다.

젊은 층의 찬성이 높은 것은 2호선이 전남대, 조선대 등 주요 대학과 관공서, 회사가 몰려있는상무지구(서구) 등을 지나

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남구와 광산구 주민들은 수완지구(광산구), 백운광장(남구) 등을 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1차 여론조사에서 반대와 유보 입장이었던 시민들이 속의 과정에서 상당수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점이 찬성률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조사에서 찬성으로 응답한 시민의 93.8%가 최종 조사에서도 찬성했다. 1차 조사에서 반대한테 이어 최종조사에서도 반대를 한 시민은 64.4%에 그쳤다. 1차에서 반대했던 나머지 35.6%의 표심은 시민참여단 투표에서 찬성으로 돌아섰다.

유보 입장이었던 시민 가운데서는 73.6%가 찬성으로, 26.4%가 반대 입장으로 갔다. 이에 앞서 지난달 10~23일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해 광주시민 2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8.6%, 반대 19.0%, 유보 22.4%이었다.

공론화위원회는 1차 조사의 찬반·유보율과 성별, 연령별,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참여단 250명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243명이 최종 투표에 참석했다.

최영태 공론화위원장은 “시민참여단의 반대 의견도 귀담고, 도시철도를 근간으로 버스, 트램, BRT,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도 주목해달라”고 광주시에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일제 때 용어 ‘헌병’ ‘군사경찰’로 변경

‘정훈’도 ‘공보정훈’으로

헌병이 창설 70년 만에 ‘군사경찰’로 병과 이름이 바뀐다.

국방부는 12일 헌병을 포함한 일부 병과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한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은 ‘헌병’(憲兵)을 ‘군사경찰’로 개칭하기로 했다. 일제강점기에 유래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병과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헌병 이름을 군경(軍警)·군경찰(軍警察)·경무(警務) 등으로 개칭하는 것을 검토해오다가 최근 헌병 내 의견을 고려해 군사경찰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헌병 인터넷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1947년 3월 군감대가 설치됐고, 이듬해 3월 11일 조선경비대 군기사령부가 창설됐다. 1948년 12월 15일 군기병을 헌병으로 개칭하고 헌병 병과가 창설됐다.

이에 헌병 출신 예비역들은 “우리나라는 고종황제 때 비록 일본식 모델인 헌병을 토대로 헌병사령부를 설치했으나 1907년 일제에 의한 대한제국 군대 강제 해산 때 헌병도 폐지됐다”며 “1949년 7월 ‘헌병령’이 공포됐으며 해방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국의식의 헌병으로 거듭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훈(政訓) 병과 이름도 ‘공보정훈’(公報精訓)으로 변경한다. /연합뉴스



공군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늘려 줄 공중급유기 1호기가 12일 부산김해공항에 착륙하고 있다. 이번에도 도입된 공중급유기는 유럽계 업체인 에어버스D&S사의 ‘A330 MRTT’로 내년에도 3대가 추가 도입된다. 공중급유기 4대 도입에 예산 약 1조5000억 원이 든다. 기체 크기는 전장 59m에 전폭 60m이며, 적재할 수 있는 최대 연료량은 24만 파운드(108t)다. /연합뉴스

전투기 공중급유기 국내 첫 도착…북 반응 주목

공군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늘려 줄 공중급유기 1호기가 12일 우리나라에 도착했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공군 사상 최초로 도입되는 공중급유기 1호기가 오늘 오후 2시에 김해공군기지에 도착했다”며 “1개월 동안 수락검사를 받은 뒤 다음 달부터 전력화된다”고 밝혔다.

공군은 수락검사 기간 공중급유기를 띄워 F-15K와 KF-16 전투기에 실제 공중급유를 시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도입한 공중급유기는 유럽계 업체인 에어버스D&S사의 ‘A330 MRTT’로 내년에도 3대가 추가 도입된다.

공중급유기 4대 도입에 예산 약 1조5000억 원이 든다.

A330 MRTT의 기체 크기는 전장 59m에 전폭 60m이며, 적재할 수 있는 최대 연료량은 24만 파운드(108t)다. 공군은 이미 공중급유기 조종사와 정비사, 급유 통제사 등을 선발해 사전 교육을 마쳤다. 급유 대상 기종은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와 KF-16 이외에 내년부터 2021년까지 40대가 도입될 F-35A 등이다.

공중급유기 전력화로 우리 공군 전투기의 공중 작전시간은 1시간 이상 늘어난다. 현재 KF-16 전투기에 연료를 가득 채우면 독도에서 10여 분, 이어도에서 5분가량

작전할 수 있다. F-15K는 독도에서 30여 분, 이어도에서 20여 분 수준이다. 그와는 달리 공중급유기로 1회 연료 공급을 받게 되면 F-15K의 작전시간은 독도에서 90여 분, 이어도에서 80여 분으로 늘어난다.

공중급유기 기종 결정은 2015년 6월 30일에 열린 제8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뤄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당시 우리 공군의 공중급유기 도입 결정에 대해 “전쟁범죄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공중급유기 1호기 도입에 대해서도 북한이 반발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전남 고교 신입생 교과서 구입비 지원

전남도·도교육청

내년부터 전남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교과서 구입비 전액이 지원된다.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은 12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2018년 전남도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고등학교 신입생 교과서 구입비 지원 등을 협의했다.

이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전남도는 도교육청에 ▲고등학교 신입생 교과서 구입비 공동 지원을 제안했다.

도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지원 ▲지자체 돌봄서비스 확대 지원 ▲미세먼지 없는 교실 조성 ▲혁신교육과 인재 육성을 위한 공동선언 추진 협조 등을 요청했다.

협의 결과, 2019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 교과서 구입비 전액을 지원하고, 미세먼지 없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공기정화

장치 4320대 설치 예산을 확보해 연내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설치기로 했다. 또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지자체 돌봄서비스 확대 지원과 혁신교육과 인재 육성을 위한 공동선언 추진은 실무진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한 뒤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앞으로 민선7기 동안 ‘전남 혁신인재 키우기’의 일환으로 인재육성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등학교 신입생의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교육청과 협의해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여건 개선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협의체다. 도지사와 교육감을 공동의장으로 도의원, 민간단체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도피 조력 의혹 동생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압수수색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의 뇌물·도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끝끝이 그의 친동생인 최규성(68)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12일 형의 도피 조력 의혹이 있는 최 사장의 직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나주혁신도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실을 압수수색해 한 박스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최 사장은 8년간 달아난 친형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와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도피 기간에 최 사장과 여러 차례 통화했고, 최 사장 명의의 병원 진료와 처방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최 사장은 압수수색 직후 언론과 통화에서 “(도피 조력 의혹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만약 최 사장이 형이 도피하는 데 도움을 줬다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법인은 은닉·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지만,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친족 또는 가족일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연합뉴스

경매투자

투자/비법에 관한 모든 것!
(주)오천경매.010-3605-5000

전국

임야/단독설/무인도
바로합니다.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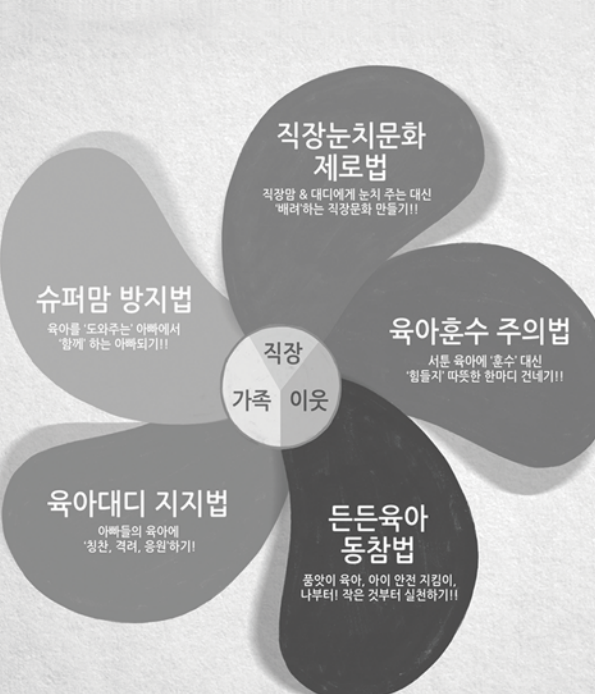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광주광역시 인구조별복지지원회 광주전남지회

함께 하면 든든 육아 성공비법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불균형개선
광주광역시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가 함께 합니다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완도 약산면 바다인접 주택 대지 607㎡ 주택 70㎡ 9200만원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 보성 문덕면 대원사입구 전원주택지 1800㎡, 1105㎡ 평당 35만원

주택·원룸·아파트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2층 80㎡ 8700만원
• 월산동 농성초 건너편 소방도접 대지 149㎡ 2층주택 115㎡ 1억3천
• 서구 쌍촌동 2층 주택 땅 105㎡ 새 주택 118㎡ 운전저수지부근 2억7천

투자·매도·교환

• 장성 삼계면 주산리 상업지 432㎡ 장기투자에 적합 5200만원
• 장성 삼계면 상업지 601㎡ 투자에 양호 은행 1억 매도 3천만원
• 무안 청계 목포대학부근 주거지 답 4413㎡ 은행 2억4천 매도 7천
• 소태동 대지 261㎡ 주택 78㎡ 조용한 생활 적합 1억9천
• 담양 월산면 가든 땅 1658㎡ 상가주택과 교환원 6억2천
• 광산구 대산동 잡종지 등 1554㎡ 창고 등 다용도적합 3억7천
• 동구 용산동 대지 등 2449㎡ 다세대·빌라·사찰 등 적합 10억 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접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7억7천
• 유동 소방도 상업지 331㎡ 상가·원룸·빌라 적합 4억7천

상가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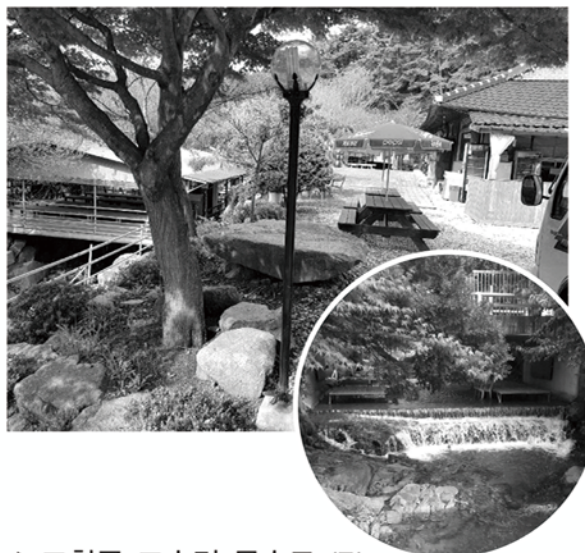
• 동구 서석동 대지 404㎡ 5층건물 919㎡ 9천에 월300수익 10억2천
• 양산동 대지 231㎡ 4층 안집과 원룸·투룸 497㎡ 교환가능 6억7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농성초부근 2차선접 상가주택 땅 172㎡ 건평 279㎡ 4억5천
• 양림동 땅 274㎡ 건물 751㎡ 요양병원할 건물과 교환가능 16억

특급물건

• 팬션 순천만 대대동 땅 332㎡ 룸 8개와 관리실 은행 3억 영업잘됨 3억천
• 아파트 부지 담양 고서면 63530㎡ 평당 70(13억)
• 완도 모텔 땅 959㎡ 45실 2393㎡ 은행 17억 감정가이하 23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천, 농성초교옆문앞

펜션·가든 부지 매매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문수사 단풍속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